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농업정책

○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 (로동신문 7.19)

-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종업원과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농업근로자의 궐기모임이 17일에 진행되었음.
-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궐기모임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 계속 힘을 쏟으며 지대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종자를 널리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함.
- 현대적인 기계수단이 갖추어진 조건에 맞게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나가야 함. 또한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 관철에 있어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 쌀로서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해야 함.

○ 논벼 생육후반기에 놓쳐서는 안될 문제 (로동신문 7.28)

- 7~8월의 논벼농사는 뿌리농사라는 말이 있음. 이 시기는 아지치기가 끝나고 이삭아지가 결정되며 이삭이 생겨 여무는 기간임. 이 시기에 벼뿌리가 왕성하게 자라 길게 뻗어야 많은 영양물질을 빨아들여 논벼생육후반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앞선 논물관리방법을 받아들여 논벼뿌리활성을 높여야 함.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논물깊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 군에서 토양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논물관리방법을 받아들였음.
- 둘째,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뿌리가 왕성하게 자랄 수 있게 영양원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함.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미생물비료를 만들어 농장에 제공하여 농장에서 논벼뿌리발육을 왕성하게 하는데 필요한 미량원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음.

2. 벼농사

☐ 풀베기, 풀거름

○ 매일 수천 톤씩 베어들인다 (로동신문 7.26)

- 울산군 협동농장에서의 농장, 작업반, 분조별 경쟁이 일어 하루 수천 톤씩 풀을 베어들이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

· 군에서는 더 많은 풀을 베어들이기 위한 단계별 풀베기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베어놓은 풀을 제때에 수송하게 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음.

· 연하, 성봉협동농장에서는 운반수단에 집중하고 있음. 작업반마다 1,000톤, 수백 톤 규모의 퇴적장을 만들어놓고 풀을 실어들이는 족족 쌓고 있음.

○ 풀거름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 (로동신문 7.28)

· 7~8월은 풀베기를 해야 할 시기임. 풀은 유기질비료생산의 중요한 원천임.

· 풀을 베어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적장을 잘 만들어야 함. 퇴적장을 만들지 않고 풀거름을 생산하면 장마철 빗물에 의하여 비료성분이 씻겨 없어짐.

· 여름철에 벤 풀은 탄소율이 낮고 물기가 70~80% 정도 충분히 들어있으므로 퇴적장에 소석회만 쳐서 쌓을 수도 있음. 풀더미를 다 쌓은 다음 반드시 흙을 덮어주어 물기와 비료 성분이 달아나거나 빗물에 씻겨내리는 것을 막아주어야 함. 풀을 쌓은 다음에는 늦어도 한달 안으로 더미를 뒤적여주어야 함.

3. 감자농사

☐ 감자농사 정책

○ 대홍단군 일꾼과 농업근로자들 (로동신문 7.21)

· 대홍단군 일꾼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수만m의 배수로와 승수로를 보수하거나 새로 팠으며 대홍단식과학농법의 요구대로 감자밭비배관리를 잘하여 큰물과 병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 놓았음.

· 7~8월은 고산지대의 감자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큰물과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자각 하에 군인민위원회, 군농업경영위원회 일꾼들이 앞장서서 배수로, 승수로 정리를 단 5일 동안에 마무리 지음.

· 또한 기술일꾼, 트랙터운전수, 시약공들은 모든 감자포기에 농약이 골고루 뿌려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기술적 요구대로 실시하였음.

4. 축 산

☐ 축산동향

○ 효능 높은 수의약품 새로 개발 (로동신문 7.21)

· 최근 국가과학원 도서관의 과학자들이 축산업부문에서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던 집짐승과 가금의 구루병치료예방약을 개발하였음.

· 폐사율이 높은 집짐승과 가금의 구루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수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은 축산물 생산을 늘리는 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 중 하나임.

- 종전에 축산업부문에서는 집짐승과 가금의 구루병을 예방치료하는 데 값비싼 비타민 D3나 린산칼시움을 이용했으나 고회석을 원료로 하는 효능 높은 구루병치료예방약을 개발하였음.
- 도 단위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이 수의약품은 집짐승과 가금의 구루병과 골연증 등에 대한 완치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비해 원가가 훨씬 싸며 어디서나 쉽게 만들 수 있어 실리가 큼. 이 성과는 국가과학기술성과로 등록되었음.

○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닭알을 (로동신문 7.28)

- 사리원닭공장의 일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닭알을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정상공급할 목표를 세우고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당조직의 지도 하에 공장에서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먹이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 기술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새 기술을 받아들인 결과 한달 동안 수십 톤의 먹이를 해결할 수 있었음.
- 한편 공장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여 놓은 먹이가공기지의 설비를 더욱 완비하고 만부하로 돌리고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 생산된 닭알이 사리원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음.

5. 농업기반

□ 토지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사업

○ 치산치수사업을 군중적으로 (로동신문 7.3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에서는 봄철에만 산들과 도로, 철길주변에 나무를 심었고, 2,800여 정보의 나무모밭에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를 심었음.
-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신의주시 선상지구에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영양단지성형공정과 야외삽목장, 수백㎡의 태양열온실을 가진 현대적인 양묘장 건설을 기본적으로 끝냈으며 도안의 도로, 철길주변과 산들에 1억 3,4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전국적으로 봄철에 2만 4,200여 정보의 수유나무림, 1만 3,500여 정보의 종이원료림을 조성하였음. 또한 근 1,000km에 달하는 강하천을 정리하고 70여 km의 해안방조제를 보수했음.
- 황해남도에서는 벽성군 석동물길을 비롯한 70여 km의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하고 룡매도간석지건설과 분지만소금밭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남포시 와우도구역, 함흥시 회상구역에서는 중소강하천을 규모있게 정리하였음.

○ 늘어나는 선경도시, 선경마을 (로동신문 7.31)

- 올해 봄철에 각지에 8,500여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새로 건설되었으며, 수만세

대의 살림집과 수천동의 공공건물이 보수되었음.

- 평양시의 일꾼, 근로자들은 130여 만㎡의 녹지와 4만 3,100여 만㎡의 화단을 조성하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지구에 100여 세대의 살림집과 구십동의 공공건물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각지에서 새 도로건설과 이미 있던 도로의 기술개건에 힘을 넣어 새 도로를 건설하고 150km의 새 도로를 건설하고 450여 km의 도로기술개건을 성과적으로 진행했음. 또한 양어장건설과 보수사업도 진행되었음.

6. 기타 작물

□ 과수

○ 세계 굴지의 과일생산기지 (로동신문 7.23)

- 김정일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인민에게 과일을 공급하는데 뿐만 아니라 나라의 과수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본보기 농장이다”라고 말함.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수준에 있어서 으뜸가는 본보기 과일생산기지임. 현재 농장의 과수원 총면적은 1천 여 정보나 됨.
- 농장의 과일나무 재배밀도는 대단히 높음. 세계적으로 앞선 과수재배기술인 V형초밀식재배에 성공하여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 올라섰음. 또한 능률 높은 기계설비가 갖추어지고 방울식관수체계가 도입되는 등 과수업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음.
- 현대적인 돼지공장에 유기질비료공장을 건설하여 해마다 수천 톤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과수원의 지력을 더욱 높이는 한편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웠음.

○ 최첨단을 자랑하는 과일가공기지 (로동신문 7.23)

-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은 연건평이 수만㎡에 달하고 여러 가지 과일을 농축하여 사이다, 쨈, 술, 식초, 향수, 샴푸, 린스 등 과일가공품을 한 해에 수만 톤을 생산해내고 있음.
- 작업장마다 CNC화된 생산설비가 갖추어져 종합지령조종실을 통해 생산공정을 감시, 조종할 수 있어 원료처리부터 여과공정, 농축공정, 제품완성과 포장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었음.
-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과일을 원료로 하여 만들기 때문에 가공품의 질이 매우 높으며, 제품포장공정은 흐름식으로 되어 있어 생산능률이 대단히 높음.

○ 과수농장들 간 경쟁을 선포하는 모임 진행 (로동신문 7.31)

· 룡전과수농장, 덕성과수농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과일군, 고산과수농장 간에 현대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선포되었음.

· 모임에서는 과일생산체계와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우량품종의 사과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모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등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 잘 갖추어나갈 것을 강조했음.

· 또한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건설하여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실현하여 정보당 과일수확고를 높일 것을 강조했음.

7. 기타 보도 동향

☐ 장마철 대비, 큰물 피해복구

○ 장마철 피해방지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로동신문 7.19)

· 자강도의 중소형발전소에서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준비성 있게 추진하면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중소발전소관리국에서는 장자강에 세운 홍주청년 1호, 2호 발전소가 큰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관리국 일꾼들은 시, 군중소형발전소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큰물피해를 받지 않게 언제구조물관리, 수문조작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장마철 병해충과 피해막이대책 (로동신문 7.20)

·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병해충을 보면 해충으로는 벼잎말이벌레, 벼강충이, 병으로는 벼희잎마름병, 벼무늬마름병, 강냉이뿌리썩음병 등이 있음.

· 벼잎말이벌레와 벼강충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벼를 튼튼히 키우는 한편 병해충 예찰사업을 강화해야 함. 도, 시, 군식물방역소 일꾼과 농장기술일꾼들은 장마철의 기상상태를 매일 알아보고 그에 맞게 예찰조직을 조직하여 벼잎말이벌레나 벼강충이가 날아드는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함.

· 벼흰잎마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삭비료를 논벼의 생육상태와 기상조건에 맞게 주어야 함. 이삭비료는 많이 줄 경우 기상조건이 나빠지면 벼희잎마름병 피해를 더 심각하게 하므로 생육상태와 기상조건에 맞게 비료주는 시기와 양을 잘 정해야 함.

·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장에서는 질소비료양이 늘어나는데 맞게 대용린, 카리, 규소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미량원소비료를 구색이 맞게 시비하여 논벼의 생육을 좋게 해야 함.

○ 한포기도 물에 잠기지 않게 (로동신문 7.29)

· 문천시 남창협동농장에서는 한포기의 곡식도 큰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기간 큰물피해를 받았던 포전을 일일이 밟아보면서 갑자기 무더기비가 내려도 곡식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웠음.

· 농장에서는 이미 세워진 배수체계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과 함께 고인물을 빼기 위한 양수장 건설을 추진하여 어떤 무더기비가 와도 고인물을 뽑을수 있도록 하였음.

· 논물관리공들은 벼의 생육상태에 따라 논물깊이와 온도를 정확히 보장하고 예견되는 날씨조건을 고려하여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있음.

□ 현지지도

○ 용천군 신암협동농장 현지지도 (로동신문 7.7)

·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비서인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비서들인 최용해, 김평해, 조선노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이만건과 함께 용천군 신암협동농장을 방문함.

· 김정일은 신암협동농장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 구상을 빠르게 실현할 신념을 안고 투쟁한 결과 알곡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고 농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 놀라운 변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지난 기간 농장이 이룩한 공로를 높게 평가하였음.

· 아울러 새로 건설한 기계화작업반을 둘러보면서 설계와 시공이 농기계들에 대한 보관관리를 잘할 수 있게 특색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농촌건설은 농촌을 더욱 살기 좋고 문명한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애국사업이라고 하면서 농장마을을 더 잘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현지지도 (로동신문 7.22)

· 김정일은 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꾼인 김정은, 리영호, 김기남, 최태복, 장성택, 김정각, 김영일, 김양건, 박도춘, 최룡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김경옥, 김원홍, 김영철, 윤정린, 국방위원회 국장 현철해와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현지지도 함.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군인건설자, 618건설돌격대원, 지원자, 농장종업원들의 노력에 의해 확장되었음. 이들은 3단계에 걸쳐 1,000여 정보에 달하는 과수원의 토지정리를 진행하고 360여 만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었으며 총연장길이가 140여 km에 달하는 도로건설, 2,800여 km에 달하는 전호식구뎅이 파기, 1,400여 km에 달하는 방울식관수시설, 1,26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불과 2년 사이에 대동강 지구의 원흥리, 도덕리, 삼성리를 굴지의 과일생산기지로

전변시킴.

- 연건평이 4만 9,000㎡인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은 사과와 배, 복숭아, 딸기를 비롯한 과일을 농축하여 각종 단물과 사이다, 쨈, 술, 식초, 향수, 샴프, 린스 등 과일가공품을 한해에 수만 톤씩 생산해낼 수 있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과일가공품 생산기지임.